

2026년
7월

최신 해외연구정보 동향

KOICA ODA연구·교육원

Effectiveness in Practice : What it Means and How it is Implemented by Four Development Agencies

실무에서의 효과성: 그 의미와 4개 개발 기관의 시행 사례

이 연구는 개발 기관들이 스스로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개발청(AFD), 한국국제협력단(KOICA), 노르웨이개발협력청(Norad) 및 뉴질랜드 외교통상부(MFAT) 소속 48명의 관계자와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효과성을 다음 다섯 가지 핵심 차원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기관 운영과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 1) 예산의 배분 방식 및 대상
- 2) 효과성 규범의 이행
- 3) 개발 프로그램의 비용 대비 효과
- 4) 기관의 조직(구조화) 방식
- 5)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관리 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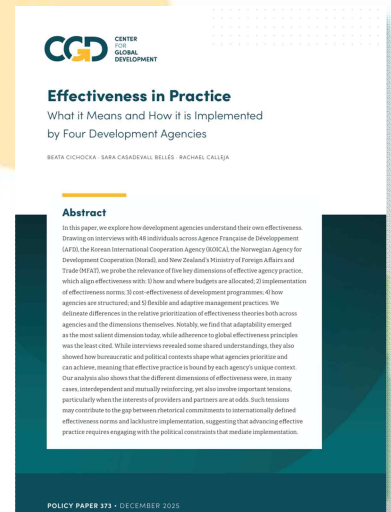
이 연구는 기관에서 효과성 이론의 상대적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차이를 규명했다. 특히, 오늘날 '적응성'(adaptability)이 가장 두드러진 차원으로 나타난 반면, 글로벌 효과성 원칙에 대한 준수는 가장 적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통해 여러 기관의 공통된 이해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으나, 동시에 관료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이 기관 우선순위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도 드러났다. 이는 효과적인 실무가 각 기관의 고유한 맥락에 의해 제약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 분석은 효과성의 다양한 차원들이 대부분 상호의존적이고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에 있지만, 공여자(providers)와 파트너의 이익이 상충할 때에는 중대한 긴장(tensions)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긴장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효과성 규범에 대한 수사적 약속과 실제의 부진한 이행 사이에서 나타나는 간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는 효과적인 실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과정에 작용하는 정치적 제약 요인을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해당 연구는 연구 시리즈물 두 번째 시리즈로,
관련 연구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CGD policy paper(350호) ➡ (바로가기)
- ☑ CGD policy paper(388호) ➡ (바로가기)



- 기관/학술지명: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 문서종류: CGD policy paper(373호)
- 발행연월: 2025.12.
- 저 자: Beata Cichocka et al.
- 주 제: Effectiveness
- 키 워 드: effectiveness, KOICA, AFD, Norad, development agencies, adaptability
- 출 처: https://ikoica.gov.kr/bbs/content/4_8890

Private actors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ndscape: Examining international philanthropic foundations' activities in the Brazilian Amazon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민간 주체: 브라질 아마존 지역 내 국제 자선 재단 활동 분석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민간 주체들은 개발 이니셔티브의 잠재적 파트너로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민간 주체가 국제 개발 협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국제 자선 재단(Philanthropic Foundation)¹의 역할을 사례 연구로 살펴본다. 이들 재단의 전략적 중점 분야, 자금 지원 패턴 및 파트너십을 분석함으로써 아마존 지역 내 국제 자선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화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주요 국제 자선 재단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미국의 대외 원조 목표 간에는 특히 인권 및 과학 연구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인다. 최근 투명성 체계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정보 공개의 부족이 정당성과 책임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는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에서 자선 활동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브라질이 주도하는 조정 메커니즘의 중요성이 커지고, 기후 행동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금융 혁신(financial innovation) 및 위험 경감(derisking) 수단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 자선 자원이 촉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 연구는 국제 자선 활동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더욱 명확한 공개 기준과 더불어, 국내 자선 중개 기관 및 국가 주도의 조정 플랫폼을 강화함으로써 책임성과 현지 주도성을 향상시키고, 자선 활동을 현지에서 정의한 기후 및 개발 전략과 더 잘 조화시킬 수 있다. 국가 역량이 제한된 맥락에서 자선 활동이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발 협력 파트너십이 포용적이고 투명하며 현지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선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¹ 공익 증진을 위한 비정부적 기구의 의미(Jon Van Til et al., "Critical Issues in American Philanthropy: Strengthening Theory and Practice", Jossey-Bass Publishers, 1990)



- 기관/학술지명: Development policy review
- 문서종류: Article
- 발행연월: 2026.7. (Volume44, Issue4)
- 저 자: Laerte Apolinário Júnior et al.
- 주 제: Philanthropic foundation
- 키 워 드: 2030 Agenda, Amaz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ivate actors, private philanthropic found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 출 처: <https://doi.org/10.1111/dpr.70079>

Strategic Design Choices in Upcycled Fashion: Effects of Design Typicality and Material Domain Distance on Sustainable Consumption

업사이클링 패션의 전략적 디자인 선택: 디자인 전형성과 소재 영역 거리가 지속 가능한 소비에 미치는 영향

의류 업사이클링(upcycling)은 환경적 가치(즉, 친환경성)와 독특한 디자인(즉, 독창성)을 반영하지만, 업사이클링 의류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범주화, 단서 활용 및 영역 거리(domain distance) 이론을 바탕으로 18~45세의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두 가지 실험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 연구 1은 디자인의 전형성(전형적 vs. 비전형적)이 지각된 친환경성(perceived greenness), 지각된 독창성(perceived uniqueness) 및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며, 연구 2는 소재의 영역 거리(높음 vs. 낮음)¹를 조절 변인(moderating factor)으로 포함하여 분석한다.

연구 결과, 전형적인 디자인과 비전형적인 디자인 모두 친환경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지각된 친환경성'이 구매 의도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 비전형적인 디자인은 '지각된 독창성'을 높여 구매 의도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효과는 소재의 영역 거리가 높다고 해서 더 강화되지는 않았다. 즉, 비전형적인 디자인에 이질적인 소재를 결합한다고 해서 지각된 독창성이 추가로 향상되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업사이클링 의류의 구매 의도를 높이는 데 있어 디자인 전형성과 소재 영역 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¹ 거리 영역 이론(distance domain theory)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과거 소재 영역과 새롭게 만든 옷의 소재 간 차이를 말한다.

*낮음: 비슷한 소재(옷▶옷)/ *높음: 소재 영역이 다름 (트럭 방수포▶옷)



- 기관/학술지명: Sustainable development
- 문서종류: Article
- 발행연월: 2026.6. (Early view)
- 저 자: Hyesim Seo et al.
- 주 제: Upcycling
- 키 워 드: design typicality, material domain distance, perceived greenness, perceived uniqueness, upcycling
- 출 처: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sd.71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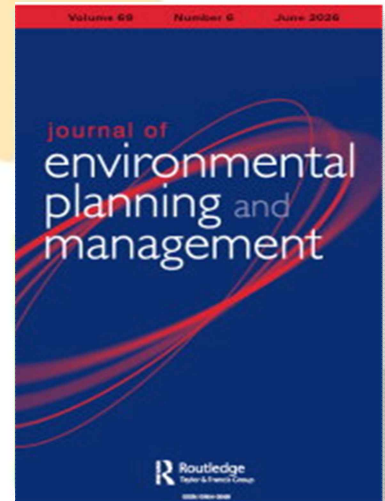
Inclusive environmental planning for wellbeing and equity: South Asian Muslim women's experiences of rural green spaces

웰빙과 형평성을 위한 포용적 환경 계획: 남아시아 무슬림 여성들의 농촌 녹지 공간 경험

자연환경이 인간의 웰빙(well-being)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접근성과 혜택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본 논문은 환경 계획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지 않은(과소대표된) 집단인 잉글랜드 거주 남아시아계 무슬림 여성들의 경험과 그들의 농촌 녹지 공간 활용 및 참여에 대해 조사한다.

이 연구는 23건의 반구조화 인터뷰 및 동행 인터뷰(walking interviews)를 통해, 교차적 정체성(intersecting identities)이 녹지 공간을 통한 회복 경험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탐구한다. 녹지 공간은 스트레스 해소와 몸과 마음의 회복에 큰 도움을 주지만, 비용, 시간, 안전 문제, 인종화 문제 등 여러 현실적인 장벽들로 인해 누구나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 계획가들은 공간 활용을 다각화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접근성을 강화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고려한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및 종교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인구집단이 녹지 공간이 가진 회복의 잠재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정체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환경 계획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 기관/학술지명: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 문서종류: Review Article
- 발행연월: 2026.5. (Latest Articles)
- 저 자: Mohammed Hamzaa et al.
- 주 제: Well-being and Equity
- 키 워 드: environmental planning, marginalisation, equity access to nature, restorative environments
- 출 처: <https://doi.org/10.1080/09640568.2026.2647144>